제1052호 1989년 3월 4일 창간 2009년 6월 28일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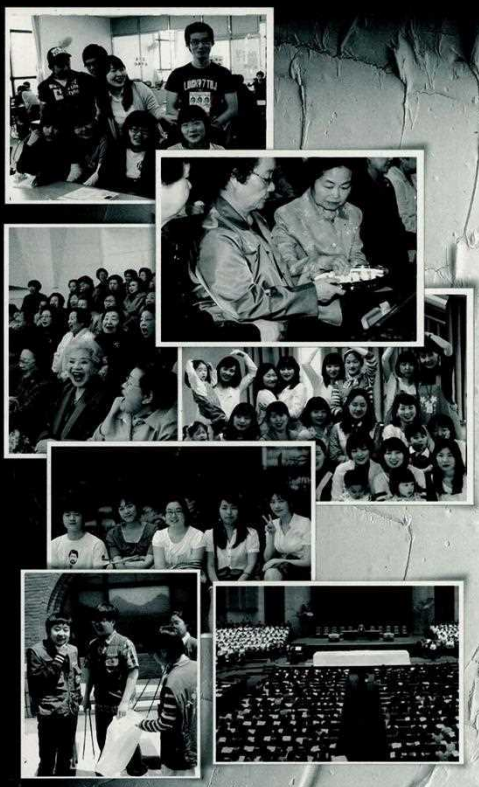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헌 편집 : 양재웅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하라!

다음 주일(7월 5일), 맥추감사주일 및 제5차 성찬식(1~5부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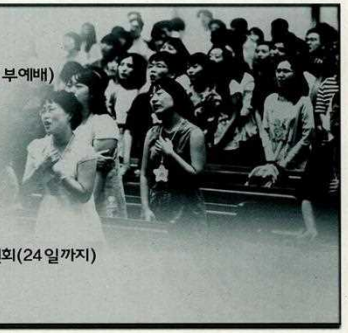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의 하나인 맥추절을 계승한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이었던 맥추절은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추절(출 23:16)은 관련 명칭 중 가장 오래된 것이며, 후대에는 칠칠절, 오순절 등으로 불려졌습니다. 칠칠절은, 이 때가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로부터 시작하여 7주간의 곡물 추수기가 끝난 뒤의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오순절 또한 추수기와 관계된 말로, 이 날이 초실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맥추절은 한 해의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를 드린 축제였습니다.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주께로만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일상의 모든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농경 사회가 아닌 현대 사회의 우리는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통하여 얼마만큼 추수를 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눅 10:2). 또한 영혼의 추수 곧 전도 사역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는지?' 살펴야 합니다(갈 5:22). 영혼의 추수보다 더 귀한 열매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맥추감사주일은 2009년 제5차 성찬식과 함께 지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참 감사가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삶의 형통함으로 인한 감사가 아닌, 갈보리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를 참된 감사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맥추감사주일과 형식적인 성찬식이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2009년 상반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온 마음을 준비하고 더불어 맥추감사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 50:23).

*오늘, 찬양예배 시 2009년 제3차 학습 및 세례식(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 갈릴리홀)

7월 교회 일정



5일 (주일)	맥추감사주일 및 2009년 제5차 성찬식(주일1~5부예배)
8일 (수)	정기당회(수요2부예배 후)
13일 (월)	대학부 수련회(15일까지)
15일 (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여전도회, 수요1부예배 후)
17일 (금)	장년1부 수련회(18일까지)
18일 (토)	에바다부(학생부) 수련회, 장년2부 수련회 총력 교회주변 전도(남전도회, 14:00)
23일 (목)	여름성경학교(영아~소년부), 중등1 · 2 · 3부 수련회(24일까지)
27일 (월)	고등부 수련회(29일까지)

Sermon for Next Sunday

UNTIL HE COMES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1Corinthians 11:26)

Today's Bible verse is part of Paul's instructions to the church in Corinth concerning the Lord's Supper. Paul received this information directly from Jesus Christ,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1Cor. 11:23). Paul wasn't around during Jesus' earthly ministry, so he missed the opportunity to sit with Jesus at His Last Supper before the cross, which is when Jesus instituted this special time of worship. The Lord's Supper is so important that Jesus took the time after His ascension to teach Paul about it. Paul now takes the time to teach other believers the same message that the Lord Jesus taught him, that when believers come to the Lord's Supper they are to remember what Jesus did for them as well as look forward to what Jesus will do for them. In so doing, the church as a whole and every believer individually proclaim the significance of Christ's death on the cross and how much His sacrifice affects our future.

Until He comes, proclaiming the Lord's death means that believers have a special duty. Our duty is to partake in the Lord's Supper. As Paul teaches, whenever we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we are proclaiming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Every time we do this we are in fact preaching the great truth of the gospel. We are proclaiming the fact that our Lord's death is historically real. We are proclaiming to our fellow believers that our trust is in Christ alone. Not only that, we are proclaiming to an unseen audience, namely the powers of darkness, that Christ has made a public spectacle of them in triumphing over Satan, sin and death. Colossians 2:15 says, "When He had disarmed the rulers and authorities, He made a public display of them, having triumphed over them through Him." Through the cross Jesus conquered everything! His victory is our proclamation! When we take the gospel of Jesus Christ, do we take it with pride? A lot of people are not proud of the gospel, but Paul clearly proclaimed,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Rom. 1:16). Jesus died for us and He is coming again to take all believers to heaven. Our sins are forgiven in Christ. We need to appreciate God's grace and merc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We need to show our appreciation through our proclamation. We are all born into sin and death, but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we are bornagain into eternal life. We become new creatures. This Lord's Supper is not an empty ritual. It is a glorious blessing that we must remember until He comes.

Until He comes, proclaiming the Lord's death means that believers have a special understanding. Our understanding is that Jesus' first coming brought salvation to us,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saw His glory,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Jn. 1:14). Sadly, most people did not recognize Jesus and treated Him very badly. The religious leaders during that time and their followers had Him crucified. Jesus died on a cross, but after three days He resurrected. He conquered death and all the powers related to it. After His resurrection, He stayed with His disciples for forty days before ascending into heaven. The angels told His disciples, "Men of Galilee, why do you stand looking into the sky? This Jesus, who has been taken up from you into heaven, will come in just the same way as you have watched Him go into heaven"(Acts 1:11). Jesus' first coming was to save the lost. He was sinless, yet He took the cross to pay the price for sin. His sacrifice makes it possible for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as their Lord and Savior to live eternally.

Until He comes, proclaiming the Lord's death means that believers have a special anticipation. Our anticipation is that Jesus' second coming will take us home. Jesus' second coming will be very different from His first coming. His first coming was to save the lost, His second coming is to take the saved and punish the lost. Matthew 25:31~33 say, "But when the Son of Man comes in His glory, and all the angels with Him, then He will sit on His glorious throne. All the nations will be gathered before Him; and He will separate them from one another, as the shepherd separates the sheep from the goats; and He will put the sheep on His right, and the goats on the left." The saved will be eternally blessed and the unsaved will be eternally cursed, "These will go away into eternal punishment, but the righteous into eternal life"(Mt. 25:46). Only those who believe in Jesus will be found righteous,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Rom. 8:1). The Lord of Judgment will judge, "But by His word the present heavens and earth are being reserved for fire, kept for the day of judgment and destruction of ungodly men. But do not let this one fact escape your notice, beloved, that with the Lord one day is like a thousand years, and a thousand years like one day"(2Pet. 3:7~8). Believers need to live a life of godliness now, "But according to His promise we are looking for new heavens and a new earth, in which righteousness dwells. Therefore, beloved, since you look for these things, be diligent to be found by Him in peace, spotless and blameless"(2Pet. 3:13~14). Not only does the New Testament mention Jesus' second coming, but the Old Testament as well, "The sun will be turned into darkness And the moon into blood Before the great and awesome day of the LORD comes. And it will come about that whoever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delivered; For on Mount Zion and in Jerusalem There will be those who escape, As the LORD has said, Even among the survivors whom the LORD calls"(Joel 2:31~32). The last book of the Bible also says, "I saw no temple in it, for the Lord God the Almighty and the Lamb are its temple. And the city has no need of the sun or of the moon to shine on it, for the glory of God has illumined it, and its lamp is the Lamb. The nations will walk by its light, and the kings of the earth will bring their glory into it"(Rev. 21:22~24).

My dear friends, until Jesus comes, let us partake in the Lord's Supper and proclaim His death with appreciation for His first coming and in anticipation of His return. As long as we are in Jesus Christ, we are safe and can look forward to our heavenly home. Before coming to the Lord's Table today, please examine yourself and repent of your sins in prayer. By faith take eat of this bread and drink from the cup. Amen.

다음 주일 설교

그가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26)

김성관 목사

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 중 주의 만찬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의 만찬에 관한 말씀을 직접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고전 11:23). 바울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특별한 예배의 시간인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과 함께 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바울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실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동일한 말씀을 다른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기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교회와 신자들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그의 속량이 우리의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무가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특별한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의무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죽으심이 역사적 사실인 것과 우리의 믿음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동료 신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청중, 즉 어둠의 권세들을 향해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광경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셨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15은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분의 이 승리가 바로 우리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후에 우리는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자랑하지 않지만, 바울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롬 1:16).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신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포를 통해 우리의 감사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죽음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으며 영원한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의 만찬은 무의미한 교회 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기억하며 지켜야 할 영광스러운 은총의 시간입니다.

신자들에게는 특별한 이해가 필요하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특별한 이해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그러나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며,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지도자들과 추종자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삼 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모든 권세들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사십 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천사는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11). 예수님의 초림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셨지만,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신자들에게는 특별한 소망이 있다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특별한 소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재림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가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31~33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은총을 누릴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 아래 처할 것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마 25:46).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의롭다 함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벧후 3:7~8). 신자들은 지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벧후 3:13~14).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욜 2:31~32). 요한계시록도 재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계 21:22~2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만찬에 참여합시다. 또한 감사함으로 초림하신 예수님의 속량을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며 영원한 천국의 집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만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보시고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떡과 잔을 취하십시오. 아멘.

2009년 제2차 청지기훈련

'특별 기도'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영혼이 올라가는 것이다.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자는 새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풍성한 자가 되며, 무서워 떨던 자가 담대한 승리자로 변한다.
기도는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우리의 기도에 십자가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예배 1시간 전부터 기도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항상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면, 어쩌면 이리도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꾸짖어 주시며 회개하게 하시는지, 그저 주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세상에 얽매인 이 죄인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마 26:41)는 말씀처럼 진정으로 무릎 꿇고 눈물로써 간절히 회개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이 못난 죄인까지 주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벧전 2:9). 저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사 영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김혜숙(집사, 10교구)

청지기훈련 교안을 보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청지기훈련에 참석하기 전 이번 주제가 '특별 기도'라는 것을 알고 난 후 나는 일반적인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과 특별 기도는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청지기훈련은 기도의 삶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청지기훈련은 작년 11월에 주신 귀한 아들 하진이와 함께 세 식구가 처음으로 드렸기에 더욱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 세 식구가 항상 주님이 보시기에 본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준성(집사, 5교구)

성도들을 안내하는 안내위원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위임목사님의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상에서 병들고 굳게 닫혀진 마음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내 눈에서 평안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안에 쌓이기만 해서 탈출구를 찾지 못했던 악함과 악에 대해 둔해진 심령이 눈물을 타고 녹아 내려 심장 밖으로 나오는 듯 했다. 매주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 이후에 성도들이 함께 다가선 오늘의 '특별 기도'를 통해 계절이 바뀌면 눈이 녹는 것처럼 나 자신의 죄 속에만 갇혀 통회하던 심령을 이제는 평안 속에서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이끌어 주심을 느낄 수 있었다. 언제나 우리를, 함께, 온전한 믿음의 길로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삼위일체 사랑을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마음속에 씨앗 뿌려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린다. 실껏잔 마음의 씨앗이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심령의 열매로서 싹 틔우고 또 다른 씨앗을 품음으로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안에서 깊숙이 전파되기를 간구한다.

심지송(청년1부)

차량을 안내하는 차량봉사부원

●주님을 위한 특별 기도

나는 금요찬양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청지기훈련에는 꼭 참석하는 편이었다. 그런데 이번 설교를 통해 크게 깨달았다. 평상시 기도하지 않고 특별한 때만 겨우 기도 하는 자는 위선자라는 것이었다. 그게 평상시에 금요찬양집회는 참석하지 않고, 청지기훈련만 꼬박 꼬박 참석하는 내가 아니면 누구일까? 나도 사실 6학년 때는 금요찬양집회에 성실히 참석하는 편이었다. 그런데 학원을 밤늦게까지 다니다보니 금요찬양집회를 점점 빠지게 되었다. 앞으로는 조금씩이라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주님을 위해 평소 기도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특별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이번 청지기훈련 말씀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킨 설교였다.

조예은(중등1부)

베다니홀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이들

●회개하는 기도

내 기도의 대부분은 나의 욕심을 쏟아내는 기도들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욕심을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셨다.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만 기도했던 내가 너무 창피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쏟아내는 기도'가 아닌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하는 기도'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나에게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시련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가 의지하며 나갈 것이다.

이은미(중등2부)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눅 6:12)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내 삶에서 기도가 중심이 되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번 청지기훈련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다. 평소에는 졸았던 적도 많았는데, 이번 청지기훈련에는 전혀 졸리지 않았고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더 쏙쏙 잘 들어왔다. 앞으로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주님, 사랑합니다!"

전은섭(충등3부)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더 이상 위선자가 되지 않겠어!

저는 평소에 금요찬양집회를 자주 못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유로 주님의 은혜 받기를 마다한 저에게 근래에 크나큰 시험이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고단한 일과에 지쳐 쓰러지려고 하자, 주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마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해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일깨워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 기도'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하는 자세를 들려주실 때, 저는 저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급할 때에만 간구하는 것은 위선자이다!'라는 말씀을 통해 쓰러지기 전에 간구하기 위해 나아온 저의 모습이 위선자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홀로 계실 때나 사람들의 모함과 박해를 받으실 때,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저는 '내가 놓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은 주님 곁으로 갈 때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인데, 왜 놓지 못했을까?' 하며, '힘들겠지만 예수님처럼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 더 이상 위선자가 되지 않겠어! 특별한 날뿐 아니라 평소에도 주님께 부르짖겠어!'라고 다짐했습니다.

김현승(고등부)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한다

오늘 청지기훈련에서는 꼭 내가 배워야 할 말씀만 나온 것 같다. 그리고 '내가 하려는 일은 다 안 된다.'라는 불만은 사라지게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부적절한 내용의 기도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된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나는 기도를 너무 소홀히 한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회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최한길(중등2부)

●은총의 단비

가슴 찔림이 반복되어 왔던 이 완악한 죄인에게 두 시간여의 청지기훈련은 촌각과도 같이 느껴졌던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완전한 분이신 예수님도 산에 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구하셨다는 기도! 그런데 나 자신은 원래 죄로 넘어지기 쉬운 육신의 약함은 물론 이미 죄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 일찍이 죄를 이기고도 남을 무기로 주신 기도를, 거기에 더하여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더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계기로 거저 주신 특권인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많았음을 돌아보며 미련한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연구(집사, 6교구)

●나에게 필요한 기도

나는 그동안 기도를 자주 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저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남들의 시선 때문에 기도를 하곤 하였다. 마치 무엇인가를 주님께 얻고 싶은 마음에…. 하지만 청지기훈련을 마치고, 기도란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주님과 대화하듯이 기도로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내가 되는 그런 청지기훈련이었다.

조주성(집사, 10교구)

●십자가 없이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땀 흘리시며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나는 외식과 육심의 기도를 드린것 같다. 나의 삶에 진정 특별 기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과 시간을 드려 한밤에 간절히 기도하며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구하지 못했었다. 아곱과 같은 시간이 필요했음에도 특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아야 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없게 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기도가 꼭 필요함을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깨닫고 눈물의 회개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음을 감사하는 삶이 되어 내가 귀히 여기던 모든 것을 헛된 줄 알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 하는 자 되길 소원한다.

남영순(권사, 4교구)

마가복음 강해 77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다 (14:2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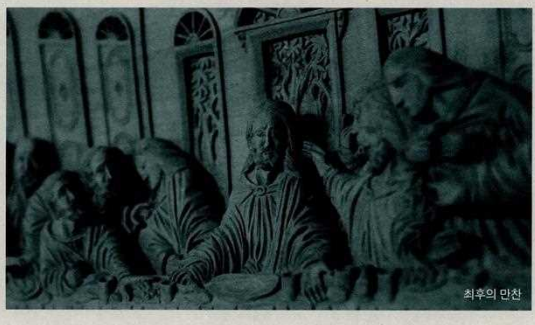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 중 한 사람이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막 14:18).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막 14:27). 이 말씀에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담겨 있다(슥 13:7). 제자들의 배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대답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막 14:29).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막 14:30)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욱 큰소리로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말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막 14:31). 이에 질세라 다른 제자들도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하였다. 그러나 결국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다(막 14:50).

제자들은 예수님과 무려 3년이나 동고동락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헌신적이었다. 제자들은 각각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제자들 자신의 의지였으며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이른바 '내가 믿음'이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께 충성을 다짐하였지만, 진정한 제자는 아니었다. 진정한 제자에게 장애물은 없다. 장애물이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시 119:165). 예수님을 따를 때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핍박을 당하게 된다. 이 때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자는 곧바로 세상과 타협하며 예수님을 배척하고 세상을 따른다(막 4:17, 6:3). 반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환난을 당하나 오히려 그 속에서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멀리하고 미련하다고 조롱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헌신한다(고전 1:23). 이와 같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장애물은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제자들의 부인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인을 예언한 뒤에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막 14:28).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막 16:7). 제자들은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만나주셨다. 사랑의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바꾸셨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막 14:68,70~72)하였고, 오순절 날 임하신 성령을 받은 후에 담대하게 외쳤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행 3:15).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에 앞장섰던 바울도 외쳤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고전 15:15).

베드로는 배반자였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을 믿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의 참 고백이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의 새로운 고백에 자신은 사라졌다(요 21:17).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죄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마 16:18). 나의 의지와 계획을 모두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자. 매순간 실패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자. 예수님만이 대답이시며 예수님이 진짜이시다. 아멘.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모든 것을 다 내려 놓으라

기도와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였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선교훈련에 빠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3차 언어심사에서 재심으로 이어졌고 축 처진 어깨로 선교기도회에 참석하였는데, "선교는 기도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동참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붙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팀원들에게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셨는지, 팀원 중 한 명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우리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선교 출발 6시간 전,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선교를 갈 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셔서 다시 한 번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지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조용히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선교지에 잘 도착하였고 지역탐방을 하던 중, 학교 선생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본인은 힌두교인이지만, 학교에 와서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처음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선교 3일째인 주일, 또 다시 주민의 반란이 시작되어 차가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걸어서 노방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을 현지어로 부르며 다녔고, 운전기사에게 "이 찬양소리가 퍼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전하였습니다. 그 후 기사분은 휘파람으로 찬송 안으로 들어왔고, 우리 팀원들은 예수 사랑의 씨앗을 선교지에 뿌리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박경혜(집사, 13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4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29일(월) ~ 7월 7일(화)	6교구 2팀	장경욱
6월 29일(월) ~ 7월 7일(화)	8교구 1팀	김광선
7월 1일(수) ~ 7월 9일(목)	14교구 1팀	이희우
7월 1일(수) ~ 7월 9일(목)	16교구 2팀	지정록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7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22일(월) ~ 7월 1일(수)	11교구 1팀	김현배
6월 23일(화) ~ 7월 1일(수)	2교구 1팀	한현석
6월 23일(화) ~ 7월 1일(수)	12교구 1팀	심희민
6월 23일(화) ~ 7월 1일(수)	4교구 1팀	임태수
6월 23일(화) ~ 7월 2일(목)	11교구 2팀	정영래
6월 25일(목) ~ 7월 2일(목)	24교구 2팀	왕순화
6월 25일(목) ~ 7월 2일(목)	17교구 2팀	남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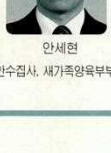
청지기칼럼

놀라운 변화

금년에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영적 싸움의 최전방인 새가족양육부의 부감이라는 자리에 임명되었습니다. 의사로서 하루하루 너무 분주한 삶을 살며, 육신의 껍데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온갖 더러움과 죄악의 뿌리들이 살아있는 나의 영적 상태에서 어떻게 감히 강단 위에 올라가 예배의 사회를 보며 새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분들에게 징검다리 돌이 되기는 커녕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제 죄는 철저하게 주님 뒤에 감춰 주시옵고, 제 입술을 제단 위에 숯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입술을 거치면서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여전히 옛 사람에서 벗어나기 싫어하는 저의 죄를 회개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길이 참아주시옵소서. 주여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새가족들이 6개월간의 양육과정을 마치고 수료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에 어떤 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성경을 손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매일 운다."는 간증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제는 너도 복음을 직접 전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일곱 명의 직원에게 새가족양육부 교재와 성경을 나눠주고 함께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전과 달리 이제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고 있었던 말씀들이 이제는 입으로도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만나는 환자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교회에 다니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딤후 4:2). 몇몇 환자분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놓고 시간 나는 대로 전화 상담을 하려고도 합니다.

"주님, 옛 사람과 새 사람을 넘나드는 철저한 이 죄인을 통하여서라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토록 힘들어하던 복음의 말문이 새가족양육부를 통하여 열리게 된 것도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는 감추어 주시옵고 오직 삼위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곱 명 모두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안세현
(안수집사, 새가족양육부부감)

♡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082	이정환	14	고등부	강기영(24)	1098	전명호	10	장년1부	홍희정(10)
1083	조디배런	1	청년2부	이유진(1)	1099	김효정	21	중등3부	조하은(21)
1084	장진희	7	대학부	장세복(12)	1100	유성문	25	에바다부	박영진(25)
1085	박희수	22	장년3부	편무산(4)	1101	유경희	25	에바다부	김순자(19)
1086	표영우	24	소년부	김경이(18)	1102	강현구	18	고등부	원종건(18)
1087	이성곤	5	장년1부	김옥권(5)	1103	이정화	9	장년1부	김강미(9)
1088	민요식	21	소망부	김영란(18)	1104	변영돈	2	장년1부	
1089	하선준	13	청년1부	김현욱(10)	1105	장효선	20	청년1부	이복희(12)
1090	이영자	19	장년2부	구성혁(15)	1106	정수영	25	에바다부	최형동(21)
1091	박성희	5	장년1부	서은숙(17)	1107	김나리	25	에바다부	양윤영(25)
1092	김부철	21	장년3부	최정자(21)	1108	정우성	22	청년2부	김윤경(20)
1093	이옥분	19	소망부	장정예(22)	1109	홍예진	1	대학부	
1094	김연수	23	대학부	형윤육(13)	1110	김남훈	9	청년1부	김중혁(23)
1095	정용남	12	장년3부	임순록(11)	1111	신경석	4	장년1부	신현옥(21)
1096	장정순	15	청년2부		1112	김효준	21	대학부	박성남(21)
1097	이근호	1	장년2부	강신순(1)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수화 칼럼 ❼ 사도신경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때에 새로운 두 세상이 열릴 것이다. 심판주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은 결정된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찬송이 있는 천국에 가게 된다. 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고통과 형벌이 있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때에 새로운 두 세상이 열릴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한동안 기도제목이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알지 못했으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리고 명목상 형식적인 회개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었다. 회개를 한 행위로 인해 내 스스로 만족감에 빠져있거나, 회개 자체보다 회개 이후의 기쁨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었다. 회개를 해야 한다는 다짐 속에 매일매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무미 건조한 어조의 고백이 기도 속에서 울릴 뿐이었다. 입술은 움직이고 있지만 내 영혼은 강팍하고 교만한 모습 그대로 깨어지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메말라가고 있었다. 이런 나에게 주님은 금요찬양집회의 '회개'에 대한 말씀을 통해 나의 상한 심령의 갈급함을 채워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은 철저히 죄인이며,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통해 죄의 모습을 목도하게 하셨다.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포장하고 죄를 미화 또는 합리화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내 영혼 속에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죄를 깨달았지만 그 죄로 인한 아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자기 연민에 빠져 다시금 죄 속에서 허우적대는 나는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능력을 믿는 것보다 머리가 아플 때 먹는 한 알의 알약이 말끔하게 두통을 씻어줄 거라는 그 생각에 대한 믿음이 더 쉬운 내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죄, 그리고 회개 또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내 영혼에 깊이 뿌리내린 교만함으로 비롯된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다. 십자가 없이 하는 회개, 더 나아가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죄뿐임을 알게 해주셨다.

끔찍한 죄 앞에서 눈물이 나왔지만, 주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내가 그토록 믿지 못했고 의심했던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기보다 내가 해보려고 했던 나의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신다. 나의 죄를 꾸짖어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인 죄에서 돌이켜 생명 얻는 회개를 누리게 하심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매일 매일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회개조차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자존심과 교만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미선(청년1부)

교회소식

모 임

1. 남 · 녀 전도회장 전체 월례회
   일시 : 28일(오늘) 15:10 장소 : 제1교육관 407호
2. 집사회 전체교육
   일시 : 28일(오늘) 찬양예배 후
   장소 : 베다니홀 대상 : 안수집사 전원
3. 권사회 연합 월례회
   일시 : 7월 1일(수) 12:40 장소 : 갈릴리홀

별 세

1. 유분임 성도(임복희 성도의 모친 · 김대봉 성도의 장모, 5교구 대치1구역) / 18일 별세, 20일 장례
2. 안장옥 씨(김성희 성도의 모친 · 김정각 성도의 장모, 3교구 상록4구역) / 19일 별세, 21일 장례
3. 한상훈 타교집사(한성희 집사의 부친 · 이상일 집사의 장인, 23교구 태평구역) / 21일 별세, 23일 장례
4. 류해관 성도(류은경 집사의 부친 · 전성욱 안수집사의 장인, 9교구 행당1구역) / 22일 별세, 24일 장례
5. 이일순 타교권사(조은형 집사의 모친 · 이석준 성도의 장모, 22교구 평촌1구역) / 22일 별세, 25일 장례
6. 백인숙 은퇴권사(이 훈 장로의 모친 · 이정애 권사의 시모, 2교구 영동2구역) / 24일 별세, 26일 장례

결 혼

1. 선동주 군(김남순 집사의 아들, 19교구)과 박병희 양(박규환 장로 · 최현자 권사의 딸, 타교) / 7월 4일(토) 11:30, 청기와 예식장 3층 홍실
2. 이정환 군(이승남 성도 · 문 희 집사의 아들, 3교구)과 이유정 양(이채수 씨 · 이감심 씨의 딸) / 7월 4일(토) 13:00, 강남웨딩컨벤션 5층 컨벤션홀

〈충현교회 55년사〉 발간
〈충현교회 55년사〉의 수령을 원하시면 사무국으로 신청 바랍니다.

전도 회장단 영성훈련(회장 · 부회장 · 전도부장)
일 시 : 7월 5일(다음 주일) · 12일(주일) 15:10~16:00 장 소 : 제1교육관 407호

장년3부 여름수련회
일 시 : 29일(월)~30일(화), 29일 17:30 교회출발 장 소 : 충현기도원

선교언어 훈련
일 시 : 매주일 15:00
장 소 : 제1교육관 405호(내몽골) 501호(캄보디아) 504호(우크라이나) 507호(몽골) 508호(인도) 509호(라오스) 510호(베트남) 511호(방글라데시)

2009년도 후반기 충현장학생 선발
1. 선발기준
   ①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7년 6월 31일 이전 등록자
   ② 교회학교에 재적 중인 고 · 대 · 대학원 · 신학대학원 학생
   ③ 모든 예배와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잘 참석하며, 각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학생
2. 신청기간 : 7월 5일(다음 주일) 16:30까지 3. 선발시험 : 7월 17일(금) 13:00
4. 문의 및 신청장소 : 교육국 ☎ 552-8200(# 472, 473)

7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일예배 (장로)					찬양예배 (안수집사)	수요예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7	5	구재완	김창국	이실호	박철구	유상태	김명성	이미주	강 순
	12	원응철	박종율	최지윤	김환기	김철환	백봉선	이상옥	김명선
	19	김연태	류기명	노광헌	정청길	김영은	남용철	강경순	김세향
	26	김종홍	이달옥	양기수	전은배	석영식	조윤준	김재명	권정희

새벽기도회 (6/29~7/5)

	6/29 (월)	6/30 (화)	7/1 (수)	7/2 (목)	7/3 (금)	7/4 (토)	7/5 (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권명옥	윤요한/전종일	이재현/정 준	강명구/박석산	김익환/이성남	김운창/최문실	송제호/홍순애
설 교 본 문	막 14:43~52	합 1:1~11	합 1:12~17	합 2:1~8	합 2:9~20	합 3:1~7	합 3:8~19

예배 담당 (7/1~7/5)

날짜	예배	설 교	사 회	기 도	찬 양
7/1	수요 I	욥의 질문 그리고 대답(욥 14:4~14) 김성관 목사	김창성	김성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호산나 찬양대)
	수요 II	화목케 하신 십자가(엡 2:11~22) 이순식 목사	김백만	홍점순	만왕의 왕 내 주께서(실로암 찬양대)
7/3	금요찬양	김성관 목사	박용현		예루살렘 찬양대 / 트럼본 이영규 / 소프라노 윤지영
7/5	주일 I	그가 오실 때까지(고전 11:26) 안치원 목사	정민권	구재완	〈예배 전 찬양〉
	주일 II	그가 오실 때까지(고전 11:26) 최강전 목사	양태선	김창국	너 성결키 위해 외 /소프라노 김희영(임마누엘 찬양대 솔로이스트)
	주일 III	그가 오실 때까지(고전 11:26) 김성관 목사	정진호	이실호	성자의 귀한 몸 외 / 소프라노 정정희(할렐루야 찬양대 솔로이스트)
	주일 IV	그가 오실 때까지(고전 11:26) 유재진 목사	하종철	박철구	예수 나를 위하여 외 / 바이올린 강혜연, 김영숙(아멘 오케스트라)
	주일 V	그가 오실 때까지(고전 11:26) 유현철 목사	김근영	유상태	아무 흠도 없고 외 / 바이올린 이수아(벧엘 오케스트라 악장)
	주일찬양	개척하라(수 17:14~18) 김성관 목사	양재웅	김명성	벧엘 여성중창단 / 만도린 연주대 / 10교구

6월 충현 기도의 창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2.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3.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 주소서.
4.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꾼이 양성(딤전 4:6)되게 하소서.
5. 1 · 1 · 1 전도(딛 1: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 ·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6.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행 1:8)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벧전 2:9)가 되게 하소서.
7.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시고, 예루살렘 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8. 충현의 재단(유지 · 동산 · 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납골시설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9.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교회 오시는 길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 당
금요찬양집회		저녁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 당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구 분	시 간	차 량
화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철야	저녁 11:00	금요찬양집회 후 본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III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 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 clock Wor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제1교육관 110호
유 아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 치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507호
중 등 1 부	오전 9:00	제1교육관 301호
중 등 2 부	오전 9:00	제1교육관 401호
중 등 3 부	오전 9:00	제1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 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장 년 1 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장 년 2 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장 년 3 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장 년 4 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1호
소 망 부	오후 12:15	갈 릴 리 홀
사 랑 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층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오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탁 아 부	(주) 오전 8:30~오후 6:00 (금) 저녁 7:00~저녁 9:30	선교관 1층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 다 니 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홀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30	제1교육관 7층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 현 복 지 관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 성 관

■ 시무장로

노광헌 당회서기	이 훈 재정위원장	김종구 충현기도원감	차신득 제3교육위원장	이종석 찬양위원장
임무천 22교구장	진홍용 행정위원장	전홍렬 재정위원	김단용 18교구장	한송규 기획위원
김환기 소망부장	원응철 선교위원장	이형수 건축위원	안동현 장년3부장	황의만 12교구장
김구형 제2교육위원장	최윤덕 23교구장	이계인 실로암찬양대장	박덕양 시설영선부장	이태식 11교구장
박홍규 봉사위원장	권명옥 예배위원장	조종환 제2교구위원장	배춘식 차량안내부장	김영달 기획위원장
이실호 전도위원	최지윤 건축위원장	노영한 19교구장	박철구 9교구장	정청길 장년2부장
신상수 재정위원	고제승 7교구장	강철형 기획위원	김영은 기획위원	이달옥 소년부장
장철환A 새가족등록실장	김승곤 감사위서기	함철주 17교구장	윤석민 예배위원	정선현 24교구장
안석현 제1교구위원장	김연근 양로원추진위원	김창국 감사위원	김중선 유년부장	임창식 영유초중도서실장
진학래 동산부장	김신국 1교구장	전계식 전도위원	전은배 20교구장	석영식 아멘찬양대장
구재완 중등2부장	송두섭 제1교육위원장	유상태 탁아부장	박상대 중등1부장	김규석 전도위원장
신광철 선교위서기	정창수 2교구장	엄복섭 가브리엘찬양대장	이상석 15교구장	오순도 외선부장
양기수 4교구장	김태식 당회부서기	김철환 16교구장	김연태 10교구장	김종홍 영아부장
장철환B 감사위원장	정태동 유아부장	이세영 할렐루야찬양대장	이성섭 기도원부장	장철규 21교구장
이보신 고등부장	이상해 13교구장	김성호 5교구장	조중민 8교구장	이호일 초등부장
추병창 유치부장	최세진 임마누엘찬양대장	김홍기 에바다부장	박광식 6교구장	류기명 14교구장
박성명 새가족양육부장	이상복 청년1부장	지규성 청년2부장	박종율 대학부장	

■ 부 목 사

박인기 에바다부	정진호 제2교구위원회	김익환 제1교구위원회	장 훈 12교구	이회식 선교위원회
하종철 5교구	안치원 2교구	정충신 18교구	양재웅 편집국	황진섭 1교구
유재진 3교구	강명구 11교구	김철규 20교구	양태선 17교구	유현철 대학부
탁정헌 4교구	김완수 외선부	최성득 22교구	최강전 23교구	박용현 24교구
강현철 9교구	이광현 16교구	강호성 21교구	윤요한 15교구	김근영 청년1부
박준식 8교구	최진철 19교구	정민권 14교구	김창성 7교구	이재현 6교구
이순식 중등1부	안일찬 고등부	송제호 중등3부	김성헌 중등2부	김백만
김운창 청년2부				

■ 여전도사

윤인숙 15교구	김연식 3교구	홍순애 5교구	이옥주 18교구	김말자 16교구
김정연 8교구	강덕필 21교구	최문실 12교구	전은희 10교구	김정자 14교구
김정희 4교구	이복순A 20교구	류진희 2교구	임태주 17교구	강영미 22교구
옥미자 9교구	이복순B 11교구	전영희 19교구	이혜숙 6교구	황순란 청년1부
김정운 24교구	강옥련 1교구	정원임 23교구	서명란 13교구	조현영 교재연구
이향란 7교구				

■ 사랑부지도 신범식 ■ 외선부 부지도 강영기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 전임연주자 장연희 노은영
■ 선 교 사 송요한

Copyright © 2009 충현교회 Published by Choonghyun Church Press